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 문 정*
(부경대학교)

The Influence of Value of Children, Marital Intimacy, Perception of Childbirth, Co-parenting on Parental Satisfaction in Women with a Child

Moon-Jeong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s total fertility rate dropped to 1.2 in 2014, which was far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of 2.07. Parental satisfaction of mothers contribute to secondary childbirth intention as well as child outcom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arental satisfaction particularly in mothers with one child. The survey conducted in five daycare centers in B city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15.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Win 21 software. 42.7% of variance in parental satisfaction was accounted for by co-parenting($t=5.566, p<.001$), value of children($t=3.575, p=.001$), and perception of childbirth($t=2.906, p=.005$). The explain power was significant($F=21.581, p<.001$).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last long enough to affect mothers of children up to the age of 6. Midwives and nurses working with laboring women should try to give them positive experience of delivery.

Key words : Value of children, Marital intimacy, Childbirth, Parenting,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05년 최저수준인 1.08명에 머물렀다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 현재 1.2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지난 수년간

정부기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Kim Keun-Sei et al., 201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 시 처하게 되는 환경적 여건과 개인의 가치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 여건으로는 경제적 자원(Ma Mi-Jong, 2008; Park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7, mjy7955@pknu.ac.kr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5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o-Young, 2010),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같은 공적 서비스 자원과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양육 지원, 부부 간의 양육 분담과 같은 사적 서비스 자원(Chung Hye-Eun et al., 2008)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등이 있다(Kim Ja-Hee, 2006; Lee Jeong-Won, 2007; Park Hyun-Ju, 2006).

첫 자녀의 출산과 그 이후의 출산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문화적인 압력 아래 첫째 자녀의 출산은 사회적 의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출산의 진정한 자율성 발휘는 둘째 자녀 이후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녀를 가지려는 의도에는 앞서 살펴본 환경적 또는 가치관적 요인의 충족과 더불어 첫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얻는 보상감과 만족감으로 정의되며(Yang So-Nam, 2011),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Chang Young-Sim et al., 2014)으로 알려져 있지만, 출생자녀수를 결정하는 변인이기도 하다(Hyun On-Kang, 1993).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 배우자의 지지, 일-가정 양립의 갈등, 부부친밀감 같은 심리적 특성(Kim Hyo-Sun et al., 2010),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융통성, 직장의 분위기, 보육시설의 만족도 같은 환경적 특성(Park Seong-Yeon et al., 2002)이 있다.

자녀가치는 자녀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총합하는 개념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 또는 도구적으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두는 가치나 의미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Kwon Yong-Eun et al., 2004), 부모가 첫 자녀에 대해 인식하는 정서적 가치는 둘째 자녀 출산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Ma Mi-Jong,

2008). 자녀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은 부모역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둘째 자녀 출산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녀가치 출산 행위의 관련요인임을 밝힌 연구는 많았으나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었다.

부부친밀감은 부부가 가깝고 밀접한 느낌을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애정적, 성적, 헌신적,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이다(Lee Kyung-Hee, 1995). 부부친밀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부모역할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산후우울(Seo Mi-Jung, 2011)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며(Muslow et al., 2002), 자녀에 대한 돌봄 수준이 높다(Jang, Sun-Woong et al., 2011)고 보고되었다. 이들 근거를 바탕으로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높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 부모-태아 애착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점진적으로 발달해간다. 특히 분만 중의 경험은 신생아나 영아 초기의 모성정체감(Cho Sun-Young et al., 1999)이나 모아상호작용(Cho Mi-Young, 1990)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자녀 출산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Kirchner et al., 1977). 여성의 분만은 단시일의 경험이지만 그 영향은 일생 지속되어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가족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생애 중요사건이자 위기이다(Nichols et al., 2000). 분만경험지각의 영향에 대한 파악은 초기 모성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에 대한 모성역할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가운데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자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주양육자를 부부공동으로 인식할수록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며(Lee Byeong-Rye et al., 2007), 특히 취업모가 주

양육자를 부부공동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양육 부담이 낮아지고 부모역할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Kang Su-Kyoung et al., 2015).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뿐 아니라 자녀발달과 결혼만족도,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 Young-Bin et al., 2011). 따라서 주양육자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요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후 만 1년이 경과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파악은 만족스러운 부모역할을 위한 분만과정에서의 조기중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후속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한 자녀 어머니로, 대상자 선정 조건은 자녀가 한 명, 자녀의 연령이 만 2~6세의 유아기, 가임기 연령의 상한선인 만 45세 이하인 기혼여성이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5.0%, 검정력($1-\beta$) 90%, 중간 효과크기(f) 0.15, 예측변수 4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08명이었다. 80%의 회수율을 가정하여 1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30부(96.3%)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25명(92.6%)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Lee Jeong-Won(2009)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사용한 자녀가치 측정도구에 남아선호에 관한 한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이다. 본 도구는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자녀가치의 두 개 하위영역에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Lee Jeong-Won(2009)의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가 .68,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가 .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가 .80,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가 .81이었다.

나.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Lee Kyung-Hee(1995)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의 세 개 하위영역에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의 친

밀감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Lee Kyung-Hee(1995)의 연구에서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다. 분만경험지각

분만경험지각은 Marut et al.(1979)의 도구를 Cho Mi-Young(1990)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분만과정, 분만, 영아의 세 개 하위영역에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Cho Mi-Young(1990)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라. 부부공동양육

부부공동양육은 Van Egeren et al.(2004)의 'Coparenting Scale'을 Park Ip-Sae(2012)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지지적 공동양육과 비난적 공동양육의 두 개 하위영역에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공동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Park Ip-Sae(2012)의 연구에서 지지적 공동양육이 .91, 비난적 공동양육이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 공동양육이 .92, 비난적 공동양육이 .85이었다.

마.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Duke et al.(1997)의 Parent Satisfaction Scale(PSS)을 Lim Kook-A(2004)가 변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PSS는 부모역할의 즐거움, 부담감, 중요성의 세 개 하위영역에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정말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Lim

Kook-A(2004)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4. 자료수집

B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41386-20150826-HR-009-03)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B지역의 5개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 조사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 간 이루어졌으며 어린이 편으로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연구윤리 준수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였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동의서에 서명 후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설문지조사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을 사용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둘째,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 Parenting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5)

Variable	Category	n(%)	Mean±SD	t/F(p)
Age(years)	26-30	13(10.4)	5.50±0.80	0.775 (.463)
	31-39	98(78.4)	5.25±0.81	
	40-45	14(11.2)	5.11±0.79	
	Mean±SD: 35.31±3.8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37(29.6)	5.18±0.78	-0.655 (.514)
	≥College graduate	88(70.4)	5.30±0.81	
Religion	None	50(40.0)	5.15±0.83	1.245 (.297)
	Buddhism	40(32.0)	5.31±0.70	
	Christian	23(18.4)	5.56±0.92	
	Catholic	12(9.6)	5.12±0.78	
Occupation	None	52(41.6)	5.15±0.81	0.993 (.374)
	Sales & service/production	49(39.2)	5.39±0.80	
	Supervisory/professional	24(19.2)	5.28±0.81	
Subjective economic status	Good	39(31.2)	5.32±0.78	1.396 (.252)
	Moderate	79(63.2)	5.30±0.79	
	Poor	7(5.6)	4.70±0.85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78.4%가 30대 연령이었고 교육수준은 70.4%가 대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이었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생산직, 관리·전문직 순으로 많았다. 가정경제 형편은 보통이 63.2%, 좋은 편이 31.2%이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가정경제 형편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참조).

2.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수준

연구변수들의 평균 점수는 자녀가치가 3.30점(±0.81), 부부친밀감이 3.30점(±0.66), 분만경험지각이 3.15점(±0.61), 부부공동양육이 3.06점(±0.45), 부모역할만족도가 5.26점(±0.80)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Table 2>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Min-Max	Mean±SD
Value of children	1.43-5.00	3.30±0.81
Marital intimacy	1.67-4.73	3.30±0.66
Perception of childbirth	1.67-4.67	3.15±0.61
Co-parenting	1.93-3.93	3.06±0.45
Parental satisfaction	3.37-6.97	5.26±0.80

3.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자녀가치($r=.34, p<.01$), 부부친밀감($r=.41, p<.01$), 분만경험지각($r=.25, p<.05$), 부부공동양육($r=.54, p<.01$)이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가 자녀를 함께 양육할수록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참조).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Variable	1	2	3	4
2	.17	1		
3	-.21*	.17	1	
4	.19*	.76**	.15	1
5	.34**	.41**	.25*	.54**

* $p < .05$, ** $p < .01$

1.Value of children; 2.Marital intimacy; 3.Perception of childbirth; 4.Co-parenting, 5.Parental satisfaction

4. 부모역할만족도 영향요인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녀가치,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과 공동양육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동시 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친밀감과 공동양육의 공차한계가 각각 0.416과 0.422를, 분산팽창지수가 각각 2.402와 2.37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보였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두 독립변수 중 설명력이 약한 변수를 단계 입력방식을 통하여 제외함으로써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다(Lee Hak-Sik · Kim Young, 2003). 그 결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을 효과가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공동양육($t=5.566, p<.001$), 자녀가치($t=3.575, p=.001$), 분만경험지각($t=2.906, p=.005$)이었으며 부부친밀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즉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현재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독립변수들 간의 공차한계는 .909-.932로 0.10보다 훨씬 컸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73-1.100로 10보다 훨씬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Table 4> 참조).

IV. 논 의

본 연구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만족하게 되면 출산 의도나 행위가 증가하리라는 가정 아래 출산 의도나 행위의 관련요인들을 부모역할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가져왔다. 연구결과, 공동양육과 자녀가치, 분만경험지각이 부모역할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부친밀감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네 개 요인이 포함된 모형의 설명력은 42.7%이었다.

본 연구에서 공동양육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Lee Eun-Sil · Choi Hye-Yeong, 2008)에서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한 아버지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역할만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는 발달단계 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세계와 또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Cabrera et al., 2000).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부모역할을 위한 배우자의 지지가 필요하다(Lee Eun-Sil · Choi Hye-Yeong, 2008). 간호사와 조산사는 임신과 분만의 전 과정에서 아버지를 부모역할에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 때 자녀양육의 책임감과 부모역할을 위한 부부 상호간의 지지가 강조되어야겠다.

자녀가치는 사회·경제적·문화적 맥락과 출산율 사이의 주요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치는 출산 후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얻는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이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arental Satisfaction

Variabl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79	.597		.970	.335		
Co-parenting	.883	.159	.468	5.566	<.001	.932	1.073
Value of children	.296	.083	.304	3.575	.001	.909	1.100
Perception of childbirth	.306	.105	.245	2.906	.005	.927	1.079

$R^2=.427$, Adjusted $R^2=.407$, $F=21.581$, $p<.001$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자녀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으나 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할 결과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Lee Jung-Min et al., 2015).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만 한다면 어머니의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짐을 의미한다. 첫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노력은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동시에 자녀가치와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출산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써 자녀가치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분만경험지각도 부모역할만족도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분만경험지각은 원래 산후에 측정되는 개념으로, 부모역할 전환의 초기단계에서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o Mi-Young, 1990), 본 연구에서 분만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각된 분만경험이 부모역할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분만은 시간적으로는 매우 짧은 경험이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의식과 가족관계에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Nichols · Humenick, 2000).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분만경험지각의 지속성과 영향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분만경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사정하고 관리하여 산모가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갖도록 체계적인 분만간호를 제공하여야겠다(Pascali-Bonaro · Kroeger, 2004). 이를 위해 르바이에분만(Park Mee-Ra · Shin Yeong-Hee, 2013), 일대일 분만지지(Hur Myung-Haeng, 2001), 가족분만(Jang Myung-Jae · Park Kyung-Sook, 2002)과 같이 긍정적인 분만경험 지각에 효과적인 분만방법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친밀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없으나 부부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있었다(Kim Jong-Hoon · Sung Ji-Hyun, 2013). 부부친밀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친밀감과 부부공동양육의 공선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놀이 참여도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며(Kim Hee-Joo, 1997), 역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부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Son Young-Bin · Yoon Ki-Young, 2011). 부부친밀감과 부부공동양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심리적 기전을 밝힐 수 있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치와 부부친밀감, 분만경험지각, 부부공동양

육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부부공동양육과 자녀가치, 분만경험지각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만경험지각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명의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만약 2회 이상의 분만경험이 있었다면 생길 수도 있을 기억의 혼동을 피하고 분만경험을 더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 분만은 보통 하루 안에 일어나는 경험지만 분만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은 자녀가 유아로 성장할 때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분만실과 산과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조산사들은 분만경험지각의 영향이 초기 모성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녀의 어머니까지 미침을 이해하고, 전체 분만과정에서 임산부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일 개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분만경험지각에 대한 조사는 과거 분만경험을 회상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횡단적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부모역할에 오랜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만경험지각이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출산교실 등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때 부부공동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부성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역할만족도의 중재요인으로써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abrera, N. J. · Tamis-LeMonda, C. S. · Bradley, R. H. · Hofferth, S. · Lamb, M.(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hang, Young-Sim · Cho, Young-Suk(2014). Parenting attitude: The effects of a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145~163.
- Cho, Mi-Young(1990).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delivery experience and their maternal-infant interaction: Compared according to delivery meth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 153~173.
- Cho, Sun-Young · Koh, Hyo-Jung(1999). A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and identity as the mother according to delivery metho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5(1), 5~17.
- Chung, Hye-Eun · Chin, Mee-Jung(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151~168.
- Duke, H. D. · Rose, H. A. · Halverson, C. F.(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ER conference, Kansas City, Missouri.
- Hur, Myung-Haeng(2001). Effects of one-to-one labor support on labor pain, labor stress response, childbirth experience and neonatal status for primipar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2), 188~202.
- Hyun, On-Kang(1993).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Dongguk University.
- Jang, Myung-Jae · Park, Kyung-Sook(2002). Effect of family-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3), 371~379.
- Jang, Sun-Woong · Chung, Hye-Jeong · Lee, Ju-Yeon (2011).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5(4), 93~111.

- Kang, Su-Kyoung · Chung, Mi-Ra · Kim, Min-Jeong (2015). A study of variables influencing working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4), 271~291.
- Kim, Hee-Joo(1997). The variables related to father's child rearing practices and involvement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 Kim, Hyo-Sun · Kim, Ock-Son(2010). Toward work-family enrichment: Positive spillover of resources across two domains. *Korean Management Review*, 39(2), 375~407.
- Kim, Ja-Hee(2006). Effects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organizations on pregnant intention among female workers. Master's thesis, Busan: Inje University.
- Kim, Jong-Hoon · Sung, Ji-Hyun(2013).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87~107.
- Kim, Keun-Sei · Kim, Dae-Geon · Lee, Myung-Seok (2013). Human services for aging and low fertility society: An analysis of the Saromagi-plan and its administrative mea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5(1), 103~131.
- Kirchner, E. P. · Seaver, W. B.(197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Final Report, Grant No. HD-06258, NICHD < NIH). University Park: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Kwon, Yong-Eun · Kim, Ui-Chol(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211~226.
- Lee, Byeong-Rye · Han, Sae-Young(2007). Effects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employed mothers' parenting behavio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11(1), 19~35.
- Lee, Eun-Sil · Choi, Hye-Yeong(2008). Effects of father's rearing involvement and spousal support on perceived parenting satisfac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5), 13~22.
- Lee, Hak-Sik · Kim, Yeong(2003). SPSS 10.0 manual. Seoul: Bobmunsa.
- Lee, Jeong-Won(2007). The study on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eong-Won(2009).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1), 323~351.
- Lee, Jung-Min · Kim, Se-Ri · Lee, Kang-Yi(2015).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value of children of primiparous mothers during the first four yea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4), 177~192.
- Lee, Kyung-Hee(1995).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3(4), 235~249.
- Lim, Kook-A(2004). The relation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pousal support with role satisfaction among men in transition to parenthood.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 Ma, Mi-Jong(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 Marut, J. S. · Mercer, R. T.(1979).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Nursing Research*, 28(5), 260~266.
- Nichols, F. H. · Humenick, S. S.(2000). *Childbirth education: Practice, research, and theory* (2nd ed.). Louis, MO: W. B. Saunders Company.
- Park, Hyun-Ju(2006).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married women's intention of fertility. Master's thesis, Seoul: Catholic University.
- Park, Ip-Sae(2012).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regulation. Master's thesis, Seoul: Seoul Women's University.
- Park, Mee-Ra · Shin, Yeong-Hee(2013). Comparison of the Leboyer childbirth method with normal vaginal delivery: Mothers'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labor pain, newborn's pain response and maternal attachment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7(2), 282~291.
- Park, Seong-Yeon · Rim, Mi-Ri(2002). Work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job characteristics, day car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2), 57~68.
- Park, So-Young(2010).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by the household income level.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 Pascali-Bonaro, D. · Kroeger, M.(2004). Continuous female companionship during childbirth: A crucial resource in times of stress or calm.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49(4), 19~27.
- Seo, Mi-Jung(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involvement in parent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elf-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6), 107~121.
- Son, Young-Bin · Yoon, Ki-Young(2011). A teachers' experience story in kindergarten evaluation preparation, procedure and review proc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7, 299~325.
- Statistics Korea(2015), Final results of birth statistics in 201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 Van Egeren, L. A. · Hawkins, D. P.(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Yang, So-Nam(2011). Strateg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The experience of full-time working mothers. Family and Family Therapy, 19(1), 103~126.
-
- Received : 23 May, 2016
 - Revised : 20 June, 2016
 - Accepted : 30 June, 2016